

부활 제 4 주일
(성소의 날)

제 1 독서 : 사도 2, 14 a. 36-41
제 2 독서 : I 베도 2, 20 b-25
복 음 : 요한 10, 1-10

순정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 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요한 10, 9).

강론

성소의 날 교황 담화문

전세계의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언제나 그대왔듯이 부활 제4주일에 온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새로운 성소로 당신의 교회를 풍부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간청합니다.
이러한 일치된 청원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그럽게 들어주시리라 믿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성소증진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투신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축성의 성소는 세례 소명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그 성소는 세례에서 받은 하느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돌봄으로써 양육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돌보는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성사 특히 성체성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화해의 성사, 개인기도와 전례기도, 복되신 동정성모께 대한 자나더운 사랑, 덕행의 실천 등입니다. 이 방법들은 내적 생활의 충만한 성장을 북돋아 주어 하느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평생을 온전히 봉헌하는 인생의 선택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부모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유합니다. 젊은이들이 세례의 은총으로 받은 하느님 생명의 씨앗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여 끊임없이 자상하게 도와 주십시오. 영성 생활의 완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들을 항상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성직자와 수도자의 양성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후보자들의 양성에 있어서 영성 생활이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 소명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세례 때 한 약속을 재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새생명”(로마6, 4)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섬김을 위한 전적인 봉헌생활로 당신을 더더욱 가까이 따르라고 주님께서 권유하시거든 여러분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신속하게 헌신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은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는 여러분께, 특히 모든 남녀 젊은이들에게 각별한 축복을 보내며,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헌신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빕니다. (발췌)

1990년 성소의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소리

오월에 시작하는 공부

공자님 시대에도 부모를 때린 자식이 있었다는데 요즘이야 말할 것이 없을 듯도 하지만, 정도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심각하다.

세상이 너무도 혼란해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요즘,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가 사회 전반의 혼란을 푸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옛사람들은 ‘혼정신성(昏定晨省)’이라고 해서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것을 사람의 도리로 알았고, 하다못해 까마귀 같은 짐승도 새끼가 자라면 제 어미를 먹여살리는 본능이 있어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인친대 풍조는 다른 윤리도덕의 타락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 큰 병이다.

이 병은 개화이후 미국의 실용주의와 자본주의의 나쁜 답습의 영향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잔인함을 최고로 아는 군사문화의 폐단을 그냥 넘어가서도 안되겠다.

생활 속에 부모와 노인들을 직접간접으로 괴롭히는 예는 늘 겪고 지낸다. 우리 신자들만은 예외였으면 하는 희망이 헛된 소망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

성가정의 모범을 묵상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류가족의 모범이야말로 모든 가정, 모든 자식들이 따라야 할 모습이다.

남편과 자식만 제일로 알고 시부모는 무시하는 아내, 자식을 조종으로 키워 나중에는 자식에게 뺨을 맞는 부모, 제 부모를 생각하면 어찌 저릴 수 있을까 싶은 남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음과 살피면서, ‘신자이기 이전에 착한 부모, 자식이 되는 공부를 시작하자.’(정)

순정이 산책



인수 인계

제4계 - 부모에게 효도하자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는 십계명중 제4계이다. 1, 2, 3계의 인간과 신과의 계명을 떠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계명중 가장 첫 계명이다. 이는 그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계명이 제5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위에 서게 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씨족 공동체로써 가부장적, 가족 형태를 유지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공동 생활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로 대변되는 원로들의 권위가 확립되어야 했다. 원래 히브리말에서 <공경한다>라는 단어는 하느님, 인격적인 존재, 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만 사용되던 말이다. 결국 이 4계는 부모의 성스러운 지와 인격을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계명을 경시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배척되어 저주를 받고 사형을 당했다.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출애 21, 15). 부모를 없신여기는 자도 사형에 처했다. (출애 21, 17)

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나

권위를 부여해야 되고 그 권위가 존중 될 때 서로의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이다. 혼탁하기 이를데 없는 현사회는 부모의 권위상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른이 없는 가정, 어른이 없는 사회는 그 자체로 방향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되찾아야 했다. 제도와 조직으로써의 권위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써의 공경과 명령이 가능해져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구원의 학교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들 자신이 출신 수범하고 가정적 기도 생활을 실천한다면 자녀들과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적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또한 부성과 모성의 직무와 품위를 갖춘 부부는 자녀 교육의 의무, 특히 자녀들의 종교 교육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다. 교육의 의무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사목현장48).

미사해설 8

가정 미사(가정 교회)

요근래에 ‘가정 미사’에 대한 잡음들이 많은 것 같다. 매일 먹고 자고 살면서 회도에락을 함께하는 곳,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가 머무는 사랑의 보금자리, 오직 우리 식구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공간에서 거룩한 제사를 봉헌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한결 같으리라. 더우기 새로 마련한 집, 큰 잔치날을 맞이한 집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누가 타하랴... 그런데 가정은 많고 사제는 적다. 또 아직도 많은 형제들이 자기집이 아닌 남의 집이나 방을 빌어 산다. 여러가지로 사제를 자기네 집에 모시지 못할 이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더욱 소외감을 느낀다.

자칫 사제가 천하고 부유한 집만을 축복해 주는 오해를 받는다. 또 미사란 하느님께 대한 감사제이며 형제끼리의 사랑의 잔치임에도 본뜻은 따로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케하는 우환과 불행을 미리 막고자 하는 푸닥거리로 전락 될 수도 있다. 십자가상의 예수의 죽음이 한 집의 액땜 정도로 취급되거나 현대 신앙인들의 최고 유희인 ‘기복신앙(祈福信仰)’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러저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로 하

여금 ‘가정 미사’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갖게 한다. 그러나 ‘가정미사’는 우리 교회 본래의 형태이다. 예수께서도 첫 미사(최후의 만찬)를 가정에서 봉헌하셨고 그후 수세기 동안 (초대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교회가 점차 비대해짐에 따라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큰 성전’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는 역사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형태의 변화는 사고의 변화마저 함께 가져 왔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이면이 생기기 시작한 것. 하느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듯 성전 안에서의 전례의식과 기도에 너무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신앙은 어떤 의식도, 사상체계도 아니다. 신앙은 삶 자체이다. 따라서 모든 곳, 모든 때가 신앙의 장소요, 신앙의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의 탄생과 죽음, 음식의 섭취와 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거룩한 곳-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 공동체에 있어 가장 거룩한 곳-가정교회-에서의 미사는 합당하고 옳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은·보석·시계·도장·고무인

명랑금방

한 일 섭(요 왕)
김 경 자(마리아)

전북대 입구

☎ 77-1926, 72-9698

전기종 삼보컴퓨터 16비트

관요한컴퓨터학원

☎ 82-9334

원장 진상철(요한)

전주시 효자동 1가 281
안해교 십거리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최영자(헬레나)

☎ 6-6951

동서권통로 신탁은행 앞

(주)거북표싱크

전북대리점

각종주방기구 전문제작메이커

대표 정성배(리차드)

중앙성당 위-비스승강장 앞

매장 4-0210

자택 74-8647

잡 관!

「스트레스」를 푼다?

5월! 좋은 때다. 여기 저기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봄기운을 더욱 달구어낸다. 본당에서, 계(契)에서 친구끼리 산으로 들로 야유회를 떠난다. 심지어 「성지 관광」을 떠나기도 한다.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신나게 놀 것인가? 모처럼의 가정과 직장으로부터의 해방…… 아마 마음껏 떠돌고 뛰고 마시고, 먹고 싶을 것이다.

그 자체를 나무라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에 또 나의 영혼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 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정신이 몽롱하도록 먹고 취한 기분에 보낸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던가? 소위 「스트레스」가 해소 되던가? 밤새도록 두들겨 대면 막힌 속이 「펑」 풀리던가? 혹시 더욱 더 허전해지고 더욱 더 외로워 지지는 않던가?

참으로 어디에서 좀 쉬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것 저것 훌훌 털어버리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떻게 쉴 수 있는가? - 술 취하고 고스톱 치는 방법 말고 더 잘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레크리에이션(Re(再)-Cratio(創造))-글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바쁜 나날들…… 모처럼 얻어지는 여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성해 볼 일이다.

“주여 제가 당신 안에 쉬기 까지는 쉬임이란 없나이다”라고 하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名言)을 생각하면서…….

교 구 소 식

치명자산 성지개발 기금 모금 바자회

전주교구 여성연합회에서는 치명자산 성지개발에 조력하고자 바자회를 갖습니다. 전 교구민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90년 5월10일-1990년 5월13일(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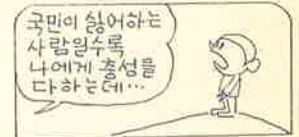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터

• 음식코너 • 음료수 코너 • 상인코너

※ 축! 견진: 여산천주교회 5월13일 공식미사

1. 참사회: 일시-1990. 5. 7(월) 오전10시30분 장소-교구청 회의실
2. 관구 사제친선체육대회: 일시-1990년 5월9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광주가톨릭 대학
3. 축! 인후동 천주교회 축성: 5월12일(토) 오후2시30분
4. '사랑의 다리'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5월7일 오전10시30분 사회복지회관
5. 가톨릭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강습회: 일시-1990. 5. 18(금) 오후1시30-20(일) 오후3시
장소-평덕 적십자수련원 회비30,000원(교재대, 숙식비 포함) 접수 및 문의-교구청 교육국(85-0041)
6.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1990. 5. 13(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중·고·대·일반
7. 각 본당 청년회장단 모임: 일시-1990. 5. 12(토) 오후3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 본당 청년회 임원
8. 「평화가 있는 이 밤에」: 5월주제(매주일요일 밤11시-11시30분 기독교방송 1314KHZ) 13일-자녀들의 종교교육문제, 23일-지나친 열심과 가정 * 위 주제에 맞는 편지나 문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홍보국) 전화85-0041
9. 치명자산 금요미사: 오전10시30분으로 바뀝니다.

요십이 (874) 김병오



영재비디오스쿨

초·중·고등학교 영어·수학 비디오 테이프 빌려드립니다

김 바오로 (세관)

(군산) ☎ 42-7108

그림나라 미술실 유치부·국교부 모집

이 미 경 (헬레나)

위치: 덕진 거성 경기장 정문 앞

☎ 75-2808

우리전투

박 성 환 (즈기리나)

김 명 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상당 앞)

☎ 85-884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훈수전문·커텐·약혼복
서울주단
김 완 준 (안토니오)
박 윤 화 (베로니카)
중앙상당 점문영
☎ 3-0453, 77-5095

자동차의 각종특수 장치 및 자동차 살림에
필요한 국내외 유명한 자동차 레저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문의, 연락을 바랍니다.
다이한 플래닝
김 무 (도미니코)
☎ 77-74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5개공소 성모의 밤: 8일 저녁7시30분 1부영화상영, 2부행사.
- 성지개발기금 바자회: 10일~13일센타. 1인1매씩 협조바람.
- 사목회상임위원회: 11일 7시30분 유고시 차장출석 요망.
- 어린이 첫영성체(대상자3학년이상): 교리신청 20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 임마누엘회원(89년 12월 영세자)모임: 오늘 공식미사후 소성당.
- 인후동성당 축성식: 12일 오후2시30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부녀회 상임위원회: 8일 어머니미사후<바자회준비>.
- 성령 기도회: 10일 저녁7시30분
- 본당우산판매: 7000원(시중가 10,000원)
- 빈첸시오 동해원방문: 7일 9시30분 출발.
- 지난주 봉헌금: 889,880원 □ 교무금: 495,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 성소주일 2차헌금: 오늘
-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후.
-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후.
- 말일회: 오늘 공식미사후.
- 올드레아: 8일 저녁미사후.
- 자모회: 10일 오전10시.
- 안나회: 경노잔치-10일 오전10시.
- 여성분과회: 12일 오전10시.
- 구리아: 13일 오후2시
- 청년회: 13일 저녁미사후.
11. 사순절 저금통 봉헌 153개.
- 금주전례: 해설-윤귀자 ①임병열 ②최옥남
봉헌-임병열씨 부부
- 차주전례: 해설-최옥남 ①송철수 ②최정희
봉헌-송철수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60,460원 □ 교무금: 1,117,6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 오늘은 성소주일: 성소자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구리아: 공식미사후.
 -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 사순절 저금통 봉헌해 주세요.
 - 성경읽기: 여호수아 21장~판관기10장.
 - 금주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양주대 ②이석남
봉헌-오철규, 하태중씨 부부
차주해설: 김영신 독서①강택용 ②김순이
봉헌-황대호, 서병철씨 부부
 - 올드레아 단합대회: 10일 여수 오전7시 출발.
 - 치명자산 개발위한 바자회: 10일~13일, 가톨릭센터.
 - 미사시간 변경: 월요일, 새벽5:30분
 - 지난주 봉헌금: 198,07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명웅
수녀원 84-2276

- ※ 오늘은 성모성월입니다.
- 회의: ①사목회-5월9일(수) 저녁미사후, ②자모회-5월8일(화) 오전10시30분, ③성심회-5월15일(화) 오후2시.
 - 알림: ①가정방문-5월16일(수)9반~신천리A반, ②첫영성체 교리-5월15일(화)부터 실시(사무실에 접수바람) ③본당올드 레아모임은 교구올드레아 행사로 대지함.
 - 지난주 봉헌금: 442,400원 □ 교무금: 377,000원

*용머리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점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구역장-반장회의: 공식미사후.
 - 복사단 어머니 모임: 5월11일(어머니 미사후)
 - "축" 결혼: 장소-전동성당(12시30분) 신랑-민승기(베드로) 신부-김정희(마리아)
 - 청소봉사: 추공3단지 서편
 - 사제관·수녀원 신축 헌금 신임총액: 21,674,000원 입금: 10,250,000원
 - 사제관·수녀원 신축 헌금 지난주 납입총액: 3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367,720원 □ 교무금: 366,000원

*전동

사제관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람.
- 재속극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 구역봉사자모임: 오늘 저녁7시.
 - 반기도회: 8일~11일 각반별로 실시바람(반기도회에 적극 참여바람) 5월중 반미사 없음.
 - 여성연합회 1일피절: 11일(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유아세계: 12일(토) 오후3시.
 - 자모회: 다음주 오전10시.
 - 사목회의: 다음주 공식미사후.
 - 구역장, 반장모임: 14일(월) 오전11시.
 - * 금주보수비 신임액: 320,000원
 - * 현재신임총액: 212,931,399원.
 - * 금주보수비헌금액: 354,000원
 - * 현재모금총액: 138,457,159원
 - 지난주 봉헌금: 1,227,660원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김준호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 사목회: 5월6일(일)-공식미사후.
- 주일학교 소공에 수고와 협조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3. 본당비품 마련에 협조해주신 타본당 형제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자, 성함, 엠브, 전자울건, 성모상, 벽시계).
-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①구양수 ②권미숙,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①함용광 ②안정옥.
- 지난주 봉헌금: 122,280원 □ 교무금: 205,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0229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 성모의 밤 행사: 12일(토)7시미사후-개인 꽃과 초봉헌있음(판매함). * 예비자인도에 관심을... 개강-오늘 오전9시, 일요일반-오전9시, 수요일반-오후8시, 중고생반-(토)오후8시 □ 신축헌금: 1,000,000원
- 구역장월례회: 공식미사후. 2. 구역형제회일정: 10일(목) 오전10시-5반, 10시30분-7반, 11시-9, 21반, 오후2시-2나반, 2시30분-2다반, 3시-14반, 4시-26반, 7시30분-1반, 8시-27, 28, 29반, 8시30분-8반, 11일(금) 오후7시30분-3반, 8시-10, 11반, 8시30분-13반. □ 교무금: 570,500원
 -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금주전례: 박연희 독서-함문권, 오연호. 봉헌-차동주 부부. 성모의 밤 전례: 문지규 복사-김광택, 김나성. 차주전례: 박종구 복사-이봉연, 최춘 봉헌-이정문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37,940원

*효자동

본 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충환
보 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 오늘성소주일 특별강론-프란치스코의 부제님
- 예비자 환영식: 오늘 11시 미사후(교육관)
 - 인나회: 오늘 11시 미사후. 3. 예비자 교리: ①일-10:30 ②화-10:30 ③목-후7:30 이상 성인 ④중고생반-토 후6시.
 - 장제물을 봉헌바랍니다.
 - 진자오르겐 구입 위한 특별헌금 익명 금일봉. 감사헌금-익명 50만원 * 감사합니다.
 - 수요성서 교실: ①오후2시 ②오후7:30 * 성서를 공부합시다.
 -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적극 관심을. 8. 5월은 성모성월.
 - ①올드레아-다음주 11시미사후. ②구역봉사자모임-수 10:30 10. 청소담당: 구역 □ 지난주 봉헌금: 870,980원 □ 교무금: 1,417,000원 □ 건축을 위한 2차헌금: 237,22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홍두
수녀원 87-0711

- 사목회: 저녁미사후. 2. 빈식회, 요섭회: 공식미사후.
- 돌담회 단합대회: 오전9:00 주일학교 성지순례 오전10:00
- 성모회: 11일(금) 어머니미사후.
- 공소미사: 11일(금) 오후2:00 북애 오후8:00 이서
- 반회합 방문: 10(목) 오후3:00 거성, 대우청송 11(금) 오후4:00 남양연립, 한성, 부광. 12(토) 오전10:00 사거리1, 2반
- 첫영성체자 및 견진성사 받을 분은 사무실에 접수바람.
- 축, 혼배성사: 신랑-윤병섭, 신부-정미경 5월6일 13:30 조동. 차주모임: 올드레아. 금주전례: 해설-강진성 독서①최계준 ②김동희 기도①김자옥 ②홍홍순 차주전례: 해설-브명래 독서①권병채 ②이정희 기도①박성수 ②강덕자 □ 지난주 봉헌금: 560,480원 □ 교무금: 612,000원 □ 나눔의 헌금: 220,570원